골프의 진지함과 재미 송두리째 앗아가는 '멀리건', '빌리건'

글 _ 이 기 윤
현) 위드스토리 대표
banchi@banchui.com

티샷을 한다. 조그맣고 하얀 공이 드라이버 헤드에 맞아 비행하듯 잔디 위를 차고 쏜살같이 날아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순간 골퍼는 벅찬 감동을 느낀다. 이때 골프의 매력을 더해주는 임팩트의 '소리'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골프공이 홀 컵에 떨어지는 소리는 '땡그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티샷의 소리'는 쉽지가 않다. 따악-이라면 될까? 아니면 타앙-? 한글이 문자의 활용을 가장 극대화할 할 수 있는 음소문자라지만 티그라운드에서 울리는 소리를 적을 의성어는 마땅치가 않다. '경쾌한' 이라던가 '호쾌한…' 등 간접 표현으로 느낌을 공유할 뿐이다. '쉬쉬쉬-쉭-' 하고 공이 날아가는 소리도 더없이 청량한 자극이다. 그 소리와 함께 세상살이의 시름과 고민, 스트레스도 다 날아간다.

인간은 일체의 소리(진동)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하고 공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소리공명기이다. 몸 속의 각 시스템들은 소리의 진동에 다양한 감정적, 정신적, 영적 반응을 보인다.
소리는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의식을 바꿔놓는데 활용 가능하며, 집중과 이완, 창조, 심령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한다. 요약하면 '활력' 이요, '생기' 요, '생명력' 이다. 골프의 참다운 매력은 이 '생명력' 에 있다.

골프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소리로 평가될 수 있는 운동인 것이다.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소리로 점수를 매길 수도 있다. 미국의 저명한 레슨프로 보브 토스키는 훌륭한 샷을 위하여 5P가 필요하다고 했다. Preparation(준비), Position(위치), Posture(자세), Path(궤도), Pace(보조) 다섯 가지인데, 그런 메커니즘 보다 '좋은 소리' 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골프 정복의 지름길일 수 있는 것이다.(기억을 더듬어 보자. 슬라이스나 훅, 로브, 뒷땅 등 구질에 따라 임팩트의 소리가 다르지 않던가. 첫 홀에서 경쾌한 소리를 출발음으로, 호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체험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흔히들 말하기로 드라이버 헤드의 재질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고 하지만 진정한 소리의 차이는 구질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재질이 아니다. 그런데, (몸이 안 풀려서도 미스가 나고, 너무 잘 치려고 하다가 미스를 내기도 하지만) 중이 염불보다 젯밥에 관심을 둔다 했던가? 골프를 하면서 공의 향방이나 비거리보다 높고 푸른 하늘, 파란 잔디와 페어웨이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나무

들, 새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정취에 먼저 취하다보면 제 실력이 발휘되지 않고 미스가 날 때가 많다. 일상과는 다른 분위기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첫 홀 티샷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보통은 이런 때 결코 반갑지 않은 멀리건이 등장한다.

멀리건은 티샷이 미스가 났을 때, 동반자(캐디 포함)의 양해를 얻어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을 말한다. 1940년대 후반 이후 골프용어가 되었는데 그 유래설은 몇 가지가 있다. 가장 오래된 설은 아일랜드에서 나왔다. 1890년 전후, 절친한 친구 4명이 주말 새벽이면 어김없이 골프를 즐겼는데, 그 중 한 명인 '멀리건'이 요절을 했다. 골프 친구란 쉬운 게 아니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지 못한 그들은 그 후 세 명이 플레이를 했는데, 멀리건의 죽음을 알 리 없는 골프장 안내 방송 담당은 세 명이 나온 줄도 모르고 세 번째 티샷이 끝나자 "멀리건 씨 치십시요"하는 안내 방송을 했다.
이때 마침 세 명 중 하나가 티샷이 마음에 안들어 속상해 있었는데, 멀리건 차례라고 하니 나서서 다시 친 것이 (물론 첫 홀 티에서만이다) 기원이라고 한다.

다음 설로는 1920년대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던 사업가 데이비드 멀리건이라는 사람이 툭하면, 잘못 친 샷을 무시하고 다시 치곤 했는데,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라 그의 이야기는 사방으로 퍼졌고, 따라서 '멀리건'이 골프용어가 되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멀리건이 아일랜드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이고 1900년대 초 미국 북동부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살았던 상황 때문에 '인디언서머(늙은 아낙네의 여름)'나 '더치페이'처럼 관용적으로 골프용어가 됐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한편에선 1900년대 초 술집에서 매상을 많이 올려주는 손님에게 공짜 술 한 병을 주었는데 그 공짜 술을 '멀리건'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골퍼들이 응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골프광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멀리건 치기를 좋아해서 요즘은 멀리건이 아니라 '빌리건'이라 하기도 한다.

어쨌든 '멀리건'이란 친선게임에서나 용인되고, 또 몸이 풀리지 않은 첫 홀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홀에서나 (시도 때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멀리건을 주고 있다. 오히려 첫 홀에서는 미스가 나도 그냥 나간다. 본부석에서 빤히 보고 있고, 또 다음 순서의 선수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에서 멀리건을 많이 활용하지만, 그래도 골프장이 대폭 늘어나기 전까지는 (진행에 구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멀리건'은 캐디의 허용아래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 매너였다. 그러나 근래는 막무가내가 되어버린 감이 짙다. 돌아가며 오비를 내고 멋대로 멀리건을 (발음도 몰간, 몰간 해가며) 주고 받는다.

스스로 '이건 몰간이야' 외치고 다시 치기도 한다. 잦은 멀리건이 동반자나 캐디에게 반길만한 것이 못됨은 누구나 알 것이다. 차라리 당당하게 벌타 먹고 다음 샷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자세요, 기량을 향상시키는 길임을 왜 모를까. 공 하나 더 치는 게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을까 싶지만, 18홀동안 3~4번 이상의 멀리건은 어드레스 잡는 시간을 포함해 몇십 분의 소요가 되어 뒷팀의 진행에 문제를 가져다 줌은 물론, 자기 팀 자체의 진행에도 문제가 생겨 나중에는 앞 팀을 따라잡기 위해 그린에서 제대로 된 퍼팅 한번 못해 보고 (오케이, 오케이 하며) 다음 홀로 옮겨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너무 잦은 멀리건은 기본적인 매너에 어긋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싶다. 그리고 한 명의 동의만 얻어서 치는 멀리건은 나머지 사람들의 '골프의 진지함과 재미'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음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